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 새로운 출발의 신들메 조인다



1월 11일,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에서는 지난 사업을 돌이켜보고 부녀연합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장과 회장단을 선출하면서 향후 사업을 더 잘할 데 대한 새로운 출발의 신들메를 조였다.

지난 1999년 연변대학녀성연구중심에서는 처음으로 직업녀성문화연구관을 개설하고 2008년에 연변대학녀성평생교육공동문화를 설립했으며 2016년에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를 설립했다. 초기에 29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는 현재 이미 559명의 회원으로 발전했다.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는 단순한 동아리모임이 아닌 녀성들의 시대적 요구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형식의 녀성여가문화, 녀성공동체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녀성들의 문화자각을 실천해가는 단체로,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는 단체로 거듭났다.

특히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에서는 지난 3년간 로병사 위문, 《민정보》 옻터 답사, ‘주덕해 생가’ 참관 등 활동을 전개하면서 녀성들의 평생교육에 당수업을 접목시켜 애국주의교양을 고양했다. 협회 애심조직위원회

를 주축으로 해마다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동참했고 방역 제1선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애심어머니협회와 전사원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녀성 특유의 사랑으로 약소군체에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업 탐방, 특강 조직, 교수진의 기업 진단, 전국애심녀성포럼 등을 통해 자아성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 신입회장 김춘영.

를 고양했으며 문예야회, 운동대회를 통해 여가문화 발전과 함께 단합을 이끌어냈다.

이날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에서는 제3기 회원대회와 기바꿈대회를 열고 김춘영을 협회의 제3대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춘영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의 1기, 2기 회장단에서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 헌신으로 협회를 이끌어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

도 거두었다.”면서 “평생교육협회의 취지에 따라 향후 회원들이 자아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회원들에게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면서 협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에서는 연변주부녀연합회 정신에 따라 제1차 부녀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의 산하에 부녀연합회를 설립했다. 이는 부녀연합회 조직이 더 온당하게 발전하기 위한 힘찬 스타트이기도 하다.

연변주부녀연합회 당조서기이며 주석인 고건은은 축사에서 “협회에서 산하에 부녀연합회를 설립함으로써 녀성사회조직과 부녀연합회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연변녀성평생교육협회 부녀연합회에서 향후 녀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정’ 역할을 착실히 해나가리라 믿는다. 또한 회원들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건설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상근기자



■김철선

2024년 전국 10대 교육뉴스 발표

중국교육보와 중국교육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2024년 전국 10대 교육뉴스’가 일전 발표되었다.

1. 전국교육대회가 소집되어 교육강국 건설을 위한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다.
2. 교육계통은 지속적으로 사상정치교육을 강화하여 덕육을 우선시하는 인재 양성의 새로운 구도 구축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3. 제40회 교사절을 맞아 우수교사집단을 성대하게 표창했다. 또한 중공중앙, 국무원은 <교육> 정신을 힘껏 고양하고 새시대 자질 높은 전문 교사대오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4. 중국국제대학생혁신대회의 품질이 재차 최고치를 경신하고 인재양성모식에서 ‘능력자질양성 우선’으로 전환되었다.
5. 국가지혜교육플랫폼은 ‘4형5종’ (四横五纵) 자원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교육 디지털화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6. 학위법, 학령전교육법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 우리 나라 교육법치건설이 중대한 돌파를 거두었다.

7. 기초교육 규범화 관리 년도행동을 전개하여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고품질 기초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학습질 향상’ (上好学) 의 아름다운 념원을 더욱 잘 충족시켰다.

8. 최초의 전국 대학 지역 기술이전 및 전환 센터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시기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서막을 열었다.

9. 2024년 세계직업기술교육발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선진리념과 성공적인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 주었다.

10. 수준 높은 교육교류협력력을 착실히 추진하여 중국 교육의 국제적 영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 인민넷

수업간 휴식시간 15분으로 연장! 무엇을 개변했을까?



2024년 12월 27일, 산둥성 고밀시 향도실험소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독수리 병아리 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학기 많은 중소학교들에서 수업간 휴식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다. 시간관리의 ‘가감법’은 수업간 휴식시간 인재 양성의 탐색을 자극했다.

수업간 휴식시간의 가치는 교실수업으로 대체할 수 없다. 수업간 휴식시간이 적용되지 않을지, 학생이 진정 누릴 수 있을지, 이는 시간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나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다. 휴식시간은 교실수업의 ‘절단’이 아니라 교실수업의 ‘유유소’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보급소’이다.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휴식시간 15분’은 ‘미세개혁’으로

큰 변화를 촉진한다. 캠퍼스에는 체육용품 상자와 장난감 상자가 많아지고 학생들의 운동이 자극하는 스포츠 설비들이 많아지며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교류가 많아진다... 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모든 활동장소를 활용하고 교사를 휴식시간활동관리자에서 공동참여자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5분만 연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지 몰랐다.”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은 감개무량해했다. 휴식시간을 수업시간처럼 중시하는 탐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수업간 휴식시간 개혁을 실제로 실행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더 잘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 인민넷

연길시 첫 전국 사생 심리건강 네트워크 감측 원만히 완성



일전, 길림성 연길시가 견본현으로 첫 전국 학생과 교사 심리건강 네트워크감시측정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다. 이번 감시측정사업은 교육부 등 17개 부문에서 연합으로 발부한 심리건강사업 전문행동계획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연길시교육국에서는 이에 각별히 중시를 돌리고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12개 견본학교의 교장, 심리교사 등에 대해 전면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감시측정사업이 시작된 이후 견본학교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비상 대비책을 제정하였다. 감시측정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반고중, 중등직업

학교, 초중과 소학교의 순서로 나누어서 진행했으며 학생 2,000여명과 교사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감시측정은 컴퓨터실 집중은 라인해답 방식을 채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건강교육과 지도를 후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연길시교육국은 심리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심리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마음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도록’ 확보하여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교사의 직업성장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파기자

가정교육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정식 출시

‘행복한 집·가정교육 서비스단지’ (幸福家·家庭教育服务园)가 최근 정식 출시되었다. 이는 전국부녀연합회에서 중국 가정교육학회, 텐센트 등과 함께 만든 가정교육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이다.

플랫폼에는 가정교육 상담도우미, 전 생명주기 동반학습, 자원봉사자 질의응답지원, 라이브 강의 및 게임 관리통제와 같은 가정지원 서비스의 4가지 기능 코너가 있는바 학부모들에게 권위 있고 전문적이며 시기적절한 포괄적인 가정교육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전국부녀연합회 녀성의 소리’ (全国妇联女性之声) 위챗 공식계정과 ‘텐센트 미성년자 학부모 서비스 플랫폼’ 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에 해당 플랫폼 입구가 설정되었다.

/ 인민넷 - 조문판

[교원수기]

영원한 행복

나는 내가 맡은 애들이 하나같이 귀엽고 이쁘기만 합니다. 하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동만을 주는 애들을 보면서 나는 교원으로서의 긍지를 한껏 느끼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중화의 자람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책임감도 느끼곤 합니다.

파란 마음으로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불안고 교단에 오르던 그날이 어찌런 듯한데 어언간 세월은 나에게 교직생애 39년이란 세월을 선물했습니다.

39년 동안 진주보석처럼 반짝이는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 속에서, 티없이 깨끗한 동심세계에서 성스러운 교원의 직책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며 언제나 몸도 마음도 가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으로 예쁘십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얼마나 더 예쁘고 멋진데.”

“선생님, 전 이다음 커서 이쁜난 소설가가 되어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멋진 소설을 쓸 거예요.”

“와!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난 너희들의 글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보십시오.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밝은 심령, 따뜻한 인정들을. 하기에 나는 애들 속에 묻혀 교원이란 긍지감 하나만으로 39년이란 세월을 교

단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운운하는 커다란 행운은 없었지만 애들의 투명하고 예쁜 마음으로 내 작은 가슴을 채우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번에 나는 몸이 아파 한주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나날 나의 핸드폰은 애들의 위문 문자로,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교실에 살며니 나타나자 애들은 너도나도 왁 - 몰려나와 나의 손끝에 나의 웃자락에 동동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프셨지요?”

“선생님, 정말 보고싶었습니다.”

“선생님, 우두만금 사랑합니다.”

하나하나 마음으로 읽어보면서 나는 몸에 서렸던 병이 말끔히 사라지는 감을 느꼈습니다. 애들은 나의 건강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애들의 노래소리는 방울방울의 눈물이 되어 내 작은 가슴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녕 기쁨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으며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애들아, 정말 고맙구나.”

진정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애들이었습니다. 된 꾸중을 듣고 쿵쾅쿵쾅 울다가도 집으로 돌아갈 때면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며 허리 굽혀 작듯이 인사하는 저 애꾸러

기들, 학급의 점수를 깎아 혼뜨면 나고도 이틀날 아침이면 “선생님, 잡수 어보세요. 정말 맛있는 사과입니다.” 하며 조꼬만 손에 받들린 하나하나의 저 동심들. 하기에 난 오늘도 순진한 이 애들 속에서 울고 웃으며 천진란한 동심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냥 맑은 응달샘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이어서 더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작은 힘으로는 몇심층에 달하는 화려한 빌딩도 지을 수 없고 세인을 놀래게 만한 커다란 발명도 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키워낸 애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하기에 오늘도 나는 무한한 긍지와 행복에 취해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냥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가짐으로 영원히 후회없이 애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나는 애들 속에서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